“100년 간 불교철학 · 역사 연구 한눈에”

한국불교사연구 · 한국불교학연구 엮은 고영섭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문으로서 불교학은 서구 근대로부터 ‘발명’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승불학은 불 · 유 · 도(佛 · 儒 · 道)와 선교(禪敎)를 논했지만, 서구로부터 온 불교학은 고증과 분석적 고찰로 불교를 다뤘죠. 한국에서 한국불교사와 불교학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입니다. 당시를 대표하는 것이 1918년에 간행된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입니다. 이후 100년 동안 한국불교학도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간의 성과를 담아낸 논문들을 묶어보려 했습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학연구〉(세존학술총서 6 · 7)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민족사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학연구〉는 지난 100년간 연구된 한국불교사 논문 21편, 한국불교철학 논문 21편을 선정하고 그 이유 등을 정리해 엮었다.

“민족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0년간 연구된 한국불교 논문들 중 ‘한국불교사연구’ 와 ‘한국불교학연구’ 로 방향성을 정하고 한국불교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논문들을 조사 · 분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논문의 의미’ 와 ‘학술적 가치’ 를 기준으로 논문들을 선정해 엮었습니다. 학연, 지연들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한국불교사연구〉와 〈한국불교학연구〉는 각 분야를 통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별 · 인물별로 논문이 게재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불교사연구〉는 김두진의 ‘고구려 초전불교의 공인과 그 의미’, 안계현의 ‘백제불교에 관한 제문제’, 신종원의 ‘안홍과 신라불국토설’ 을 통해 고대 4국의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최병헌의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적 위치’, 김상영의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 양상과 조계종의 위상’, 이종수의 ‘조선 후기 불교 사기(私記) 집성의 현황과 과제’, 김광식의 ‘일제하 한국불교계의 독립운동 전개와 성격’ 등에서는 고려-조선-근대의 불교 역사를 살필 수 있게 했다.

〈한국불교학연구〉는 고대의 불교 전래 이래 중세와 근세 및 근대의 불교 철학의 지형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을 선정해 한국불교철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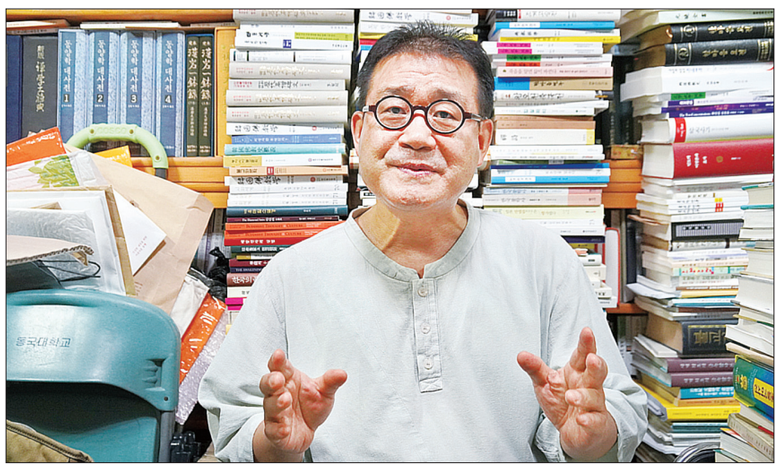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관점에서 김성철의 ‘신삼론 약교이제설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조윤경의 ‘〈대승현론〉 길장 찬술설에 대한 재고찰’, 안성두의 ‘원측의 〈해심밀경소〉에 나타난 알라야식과 그 특색’, 이종철의 ‘원측과 티베트불교’, 권오민의 ‘원효교학과 아비달마’, 고영섭의 ‘분황 원효의 일심사상’, 해주 스님의 ‘일승법계도에 나타난 의상의 법계관’, 진수 스님의 ‘신라 의상이 일본 화엄학에 미친 영향’, 이수미의 ‘〈대승기신론〉의 알라야식에 대한 대현의 이해’ 등을 통해 고대 4국의 불교철학을 엿볼 수 있다.

고 교수는 파편화된 논문들을 주제나 테마를 정해 한 곳에 묶어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관련 논문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를 하나의 관점이나 컨셉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대중들은 보지 않아요. 앞으로도 테마를 정해서 관련 논문선을 만드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 같은 논문선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고 교수의 목표는 한국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통사’ 를 발간하는 것이다. “‘통사’ 는 다양하면 할수록 좋다”는 고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통사’ 집필에 열심이다.

“올해 11월 마감을 목표로 통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발간하면 내년 초 쯤이 될 것 같습니다. 교단, 사상, 미술 등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고영섭 교수가 자신이 엮어낸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편린된 연구논문 한데 모아
통사적으로 읽도록 엮어내
각 권에 21편 논문 수록해
“불교통사 집필, 내년 발간”



희소 고려末 건칠불상 보물된다

건칠불상 · 아미타삼존상
문화재청, 30일 지정예고
건칠불, 20여 점만 전승
역사성 · 보존 가치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된 건칠보살좌상(사진 왼쪽)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사진 오른쪽)

고려 말기~조선 초에 조성된 건칠불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건칠보살좌상’ 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선시대 전적인 〈묘법연화경〉을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건칠보살좌상’ 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說法印)을 결한 좌상이다. 제작기법은 건칠(乾漆)로, 건칠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옻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기법이다. 현재 건칠불상은 20여 점 밖에 존재하지 않아 불교조각사에서 희소한 가치를 지닌다.

건칠보살좌상은 124.5cm의 큰 규모에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정된 비례감과 중후한 신체 표현을 비롯해 석영재질의 눈동자를 별도로 만들어 넣은 조성기법 등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후대의 보수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현존하는 건칠보살상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중량감 넘치는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며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과 공예기술이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상과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됐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췄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지닌 점에서 한국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원문을 통해 이 삼존상은 시주자인 장현(張鉉)과 그의 처 선씨(宣氏), 김진, 이겸 등이 발원자로서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존불을 시주한 김진과 이겸은 고위관직을 지낸 인물들로서 원나라 태황태후를 하례하거나 중요 불사에 참여한 행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문화재청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 아미타여래와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제작당시의 모습 그대로 모두 남아 전하는 사례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며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고려 후기 불상 제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안심사(安心寺)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으로,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칠보살좌상’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정화주역 경산 대종사 조명 나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7월 12일 학술대회

청정율사이자 정화불사의 주역 학월 경산(鶴月京山, 1917~1979, 사진)의 업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법당간, 경산 대종사’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K-Buddhism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은 유구한 역사성과 다양성을 가진 한국불교의 문화콘텐츠를 첨단 기술로 가공한 고승 아카이브를 구축해 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조계종의 정법당간으로서 경산 대종사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발표와 논평은 이판과 사판에 있어서 장애가 없었던 학월 경산의 삶과 가르침을 연구할 수 있도록 불교교학과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학 분야 학자들이 참여한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는 ‘학월 경산의 수행과 지계’ 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경산 대종사의 정화불사와 종단화합’ 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월 경산의 총무원장 중심제’ 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경산 대종사의 포교행’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군승장교 원경 스님이 참여한다.

경산 대종사는 통합종단 이전인 1961년 2월에 총무원장으로 1차례 선출됐고, 통합종단 이후 1966년, 1973년, 1979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1975년 제9대 총무원장 재직 시에는 불교계의 숙원사업이던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이끈 장본인이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